



순창군이 친환경연구센터 건립을 본격화해 순창농업 경쟁력의 핵심인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은 물론 삼락농정실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순창 친환경연구센터 건립

### 삼락농정실현 가속도... 유기농업 기술 개발·농업의 체질 개선 사업

순창군이 친환경연구센터 건립을 본격화해 순창농업 경쟁력의 핵심인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은 물론 삼락농정실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이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는 친환경농업의 핵심인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농민들의 교육을 통해 기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저비용 유기농자재 생산과 공급 등의 기능도 수행해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핵심 사업이다.

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며 순창읍 유등면 건곡리 1425번지 일원 8,301㎡부지에 지상 2층 건물 3동이 건립된다.

이곳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유

기농자재, 토착미생물, EM 활성수 등을 생산하는 플랜트가 구축되는 종합 연구실용화센터, 작물들의 실증재배가 진행될 연구온실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순창군에는 특히 큰 의미가 있다. 순창군은 황숙주 군수 취임 이후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월말 친환경인증면적 1,119ha로 전라북도내 가장 많은 인증면적을 확보했다.

이는 경지면적 대비 11.3%를 넘어서는 수치다. 도내에서 10%를 넘는 시군은 순창군이 유일하다.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삼락농정의 제값 받는 농업 가치를 가장 잘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군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통한 기반조성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질적 성장과 선순환 발전 구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핵심이 친환경농업 연구센터와 올해 완공한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인 셈이다. 최근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무사원공을 기원하는 안전지원제도도 진행했다.

이날 안전지원제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인단체 관련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순창친환경 농업의 핵심인 연구센터 무사원공을 기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축산업 ICT기술 접목 스마트팜 구축

### 내·외부환경·모니터링 장비·자동 원격제어 가능한 사양관리장비 등 지원

남원시가 축산업에 ICT기술을 접목한 원격 자동제어 스마트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올해 남원시는 ICT 융복합 장비 지원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및 남원시 축산업 질 향상을 위해 2016년도 농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ICT융복합 축사지원사업 공모결과 사업비 16억원(국비5, 읍지8, 자담3)을 확보했다.

지난해 9월부터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여건, 등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하여 사업계획서 내용

이 우수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 농가를 지원대상자로 최종확정하였다.

스마트팜 구현을 목표로 하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내·외부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등) 모니터링 장비, 자동 원격제어 가능한 사양관리장비(사료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 모니터링·분석·제어·생산 및 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ICT융복합 시설 장비 등이 지원되며,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사업자의 필수 사항이

다.

또한 ICT 융복합 시설을 적용한 축사는 온도, 화재 등의 감지 시스템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웹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전산 입력 시간과 양만큼 자동으로 급이 됨으로써 사료잔량을 최소화하고 사료 변질을 줄일 수 있어 사양관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개체별 관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사양관리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치즈 활용한 휴게소 이색음식

### 오수휴게소... 치즈피자·치즈돈가스 등 출시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하행)는 최근 임실군의 대표 특산물인 '임실치즈'를 활용한 치즈피자와 치즈돈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이색음식을 출시해 휴가철 행락객의 취향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

그중 대표적 한식 메뉴인 비빔밥과 임실치즈를 퓨전한 절판 비빔밥은 이색적이며, 영양과 맛을 그대로 담아내 휴가철을 맞아 하루 2천여명의 인파가 몰리는 오수휴게소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절판 비빔밥은 지난해 전국고속도로휴게소 맛자랑대회와 전남 함평군 전국명품요리경연대회에 출품해 각각 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해 일찌감치 인기를 예고했다.

지역특산품을 휴게소 음식과 접목해 차별화된 먹거리를 제공한

오수휴게소는 위생적인 조리 환경과 가격 대비(1인 7,000원) 높은 완성도로 특산물 홍보와 더불어 휴게소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황기홍 오수휴게소장은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실치즈의 브랜드가치를 활용해 지역이미지를 비롯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상생하는 휴게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수휴게소는 매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사랑 실천을 위해 지역의 경로당과 소의시설 방문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노력해 지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광복절 맞이 경축식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국권을 되찾은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경축식을 15일 고창읍 새마을공원과 아산면 공설묘지에서 개최했다.

경축식에는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의장, 이호근·장명식 도의원, 군의원, 독립유공자 유가족, 기관사회단체장 및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

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경축사, 만세삼창, 광복절노래 제창 등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광복 71주년을 기념했다.

또 인촌 김성수 선생, 근촌 백관수 선생의 동상이 있는 새마을공원과 아산 공설묘지 독립운동가 김공삼 공의 묘소에서 각각 헌화 분향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경축사를 통해 "뜻깊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일제에 맞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당당한 역사를 물려 준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후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고추 병해충 방제 강화

임실군은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고추 병해충 방제 현장 활동' 강화에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고추 육묘 시기부터 방담 생육중기인 지난 7월 까지 평균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적으며, 한낮 온도가 35°C에 육박하는 기상여건으로 담배나방, 총채벌레 등 주요 해충과 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담배나방은 6월부터 9월까지 연 3회 발생 최성기를 이루며, 성충 한마리가 약 300~400개 정도의 알을 산란하고 벌레는 잎, 과실, 꽃봉우리를 갉아 먹어 피해를 유발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또한, 예찰 결과 총채벌레도 발생량이 많으며, 평균적으로 암컷 한마리가 20~170개 알을 낳고, 직접적인 피해보다 약제로 방제가 어려운 바이러스 병을 매개하기 때문에 방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법은 세심한 예찰활동을 통해 총채벌레 발생시 해질 무렵이나 이른 새벽에 꽃잎 속까지 약액이 묻도록 충분한 약제 살포가 중요하며 특히, 방제와 더불어 최근 가뭄과 폭염으로 고추 생육이 저하될 우려가 높은 만큼 관수를 실시하고, 생육이 저조한 고추는 웃거름 사용과 요소 0.2%액 등 엽면시비로 생육을 회복시켜 품질 좋은 고추를 수확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추진

순창군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수준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군이 추진하는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은 총 58가구에 4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군은 보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도 체결했다.

수선유지사업은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주택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적용한다. 3년~7년 주기로 35만원~95만원 이내에서 지붕수선, 옥실개방, 난방공사, 창호교체 및 도배·장판 등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 효과가 높다.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편의시설도 추가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군은 지난달 긴급수선대상자 6가구에 대한 대보수 공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주로 비가 오면 지붕 누수가 심해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긴급한 수선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결연아동·후원자 만남의 날

임실군과 선각회(회장 박행용)는 지난 13일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결연아동·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회원과 결연아동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자와 만남의 시간, 치즈 체험, 점심 함께하기, 격려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19년째 이어지는 선각회의 후원 활동과 향후 봉사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어려운 학생들이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선각회 활동으로 현재까지 42명이 후원을 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대학교와 사회활동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등 인재양성과 봉사를 실천해 지역민의 칭송을 받고 있다.

한편, '결연아동·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는 경기·서울지역 중소기업 대표자 27명으로 구성된 박행용 선각회 회장의 강진면 연교를 계기로 지난 1997년 시작됐으며, 현재는 매년 20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예약은 필수!**  
**임실에서 힐링하세요 ~**

**세심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4-4611, 063-640-2475  
 ● http://smhu.imsil.go.kr

**성수산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2-9456~7  
 ● http://www.sunsusan.co.kr